

1910년대 후반 呂準의 활동을 통해 본 부민단과 신흥무관학교 측의 동향

박 성 순*

국문초록

본고는 부민단이 조직되는 1916년부터 한족회가 조직되는 1919년 5월 직후까지의 시기를 다루었다. 그동안 각종 자료나 연구에서 한족회 및 서로군정서 설립 이후의 사실들은 잘 규명되어 왔지만, 1916년부터 1919년 사이의 시기는 부민단이나 신흥무관학교와 관련된 활동내용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활동내용이 서간도 독립운동의 일관된 지속성과 그 외연을 살펴보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검토하였다.

부민단은 경학사를 이은 민단조직이었지만, 한인동포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결사대를 조직하여 무장행동을 시도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1918년 4월 길림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망라된 東省韓族生計會가 발족하였다. 생계회의 초대회장은 신흥학교 교장과 부민단 교육회장을 역임한 呂準이었다.

생계회장 여준은 1919년 3월에 군정사를 조직하여 단장이 되었다. 그해 10월 군정사 밑에 급진단이라는 비밀무장결사를 조직하고 역시 단장에 추대되었다. 급진단은 길림에 사무소를 두고, 하얼빈·니콜리스크 등지에서 무기를 수입하고 병사를 모아 국내 진공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내 진공계획은 재외 독립운동계 전반이 연관된 연합작전의 성격을 띠었다.

부민단에서 한족회로 이어지는 1910년대 후반의 시기는 서간도 독립운동의 정체가 아니라, 생계회를 이용하여 만주 이주 한인의 자생책 마련과 국권회복의 방책을 실현하던 시기, 급진단과 결사대를 이용하여 무기를 마련하고 국내 진공작전을 도모하던 도전과 모색의 시기였다. 그리고 그 노력의 효과는 잠시 후 만주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연합작전 속에서 전개된 청산리대첩을 통해서 구현되었다.

[주제어] 부민단, 신흥무관학교, 여준, 동성한족생계회, 급진단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급진단의 활동과 성격 |
| II. 부민단과 신흥무관학교의 관계 | V. 맺음말 |
| III. 생계회의 조직과 목적 | |

* 단국대학교 부교수 / ttiger97@dankook.ac.kr

I. 머리말

新民會의 결의에 의거하여 독립군 간부 양성을 위해서 국망 이후 서간도에 처음 세워진¹⁾ 新興武官學校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1911년 설립 당시 新興講習所로 시작하여, 1912년 신흥중학교를 거쳐 1919년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²⁾

서중석은 그의 저서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에서 신흥무관학교의 명칭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추가하였다. 신흥중학교 시절에는 大東중학교 또는 養成중학교로도 불렸다는 점, 그리고 합니하로 본교를 옮긴 후에도 당사자들은 중국 당국과 일본 관헌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서 여전히 신흥강습소를 대외 명칭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그렇지만 신흥학교의 공식 명칭이 신흥강습소였다 해도 당시의 독립운동자나 학생들, 주민 일부, 특히 군사과에 다닌 학생들은 이곳이 무관학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신흥무관학교라고 불렀다는 것이다.³⁾ 따라서 본고의 제목과 내용에서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신흥무관학교라는 명칭을 병칭하였다.

扶民團과 신흥무관학교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민단은 신흥무관학교 경비 일체를 책임지는 기관이었다.⁴⁾ 애초에 신흥강습소는 민단조직인 耕學社의 부속기관으로 출발하였다.⁵⁾ 그러므로 경학사를 계승한 민단조직 부민단과 신흥무관학교는 사실상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목에서 굳이 부민단과 신흥무관학교를 병렬한 것은 신흥무관학교 측의 외연을 명시함으로써 그 활동상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 때문이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1910년 후반이라는 시간적 범위는 주로 부민단이 조직되는 1916년부터 한족회가 조직되는 1919년 5월⁶⁾ 직후까지의 기간이다. 부민단이 조직된 시기에 대해서는 종래 1912년 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왔으나, 조동걸과 서중석에 의해서 1916년 설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⁷⁾ 필자는 이들 논리의 정황을 검토하고, 아울러 필자가 새롭게 확인한 일제측 자료에 근거하여, 1916년 설을 준용하고자 한다.⁸⁾

1) 慎鋪廈, 「新民會의 創建과 그 國權回復運動」, 『韓國民族獨立運動史研究』, 乙酉文化社, 1985, 31쪽.

2) 채근식의 『武裝獨立運動秘史』에서는 1920년 5월 3일에 서로군정서에서 정식으로 신흥학교를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하였다고 기술하였다(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대한민국공보처, 1985, 53쪽). 그러나 서중석은 채근식이 그의 저서에서 1년씩 틀리게 기술한 것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1920년 설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0, 179쪽). 김승학의 『한국독립사』에서도 1919년 5월 3일 신흥무관학교라 개칭하고 정식으로 무관학교 개교식을 거행하였다고 되어 있다(金承學, 『韓國獨立史』 上卷, 獨立文化社, 1965, 352쪽).

3) 서중석, 위의 책, 111~113쪽.

4) 金承學, 앞의 책, 348쪽.

5) 蔡根植, 앞의 책, 48쪽.

6) 채근식에 의하면, 1919년 5월 초순 부민단의 제도와 사업을 계승한 한족회와 서로군정서(여기서는 군정부를 의미- 필자 주)가 설립되었고, 11월 17일 임시정부 국무회의 의결 결과 군정부를 서로군정서로 명명하였다(蔡根植, 앞의 책, 50~51쪽).

7) 부민단이 1912년에 설립되었다는 설은 『獨立新聞』(1919.11.1), 채근식의 『武裝獨立運動秘史』, 애국동지원호회에서 편찬한 『韓國獨立運動史』, 김승학의 『韓國獨立史』, 원병상의 수기 등에서 제시되었고, 연구자들도 이것을 많이 받아들였다. 1916년 설은 서중석이 「청산리전쟁 독립군의 배경 - 신흥무관학교와 백서농장에서의 독립군 양성」, 『한국사연구』 111, 한국사연구회, 2000, 22쪽에서 주장하였고, 그의 저서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97쪽~99쪽에 걸쳐서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조동걸 역시 부민단의 설립시기를 1916년으로 보는데, 경학사(1911~1913) - 공리회(1913~1916) - 부민단(1916~1919) - 한족회(1919)로 변천했다고 시기를 세분화 했다(조동걸, 『于史 趙東杰 著술전집』 12, 역사공간, 2010, 127쪽).

그동안 각종 자료나 연구에서 한족회 및 서로군정서 설립 이후의 사실들은 잘 규명되어 왔지만, 1916년부터 1919년 사이의 시기는 부민단이나 신흥무관학교와 관련된 활동내용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활동내용이 독립운동의 일관된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토하려고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신흥무관학교 교장과 부민단 교육회장을 역임한 여준의 활동을 통해서 이 시기 부민단과 신흥무관학교의 동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 시기와 관련하여 한국 측 자료는 관련된 자료가 거의 없어, 당시 일제측 자료를 주로 검토하였다.

II. 부민단과 신흥무관학교의 관계

부민단의 뜻은 대개 만주땅 부여 舊疆에 부여 유민이 부흥결사를 세운다는 뜻과,⁹⁾ 만주에 이주한 이주민들을 지켜 부양한다는 뜻으로 알려져 왔다.¹⁰⁾ 일제의 자료에 의하면, 약간 다른 해석도 전해진다. 원래 부민단은 富民團으로 호칭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부자가 결핍한 까닭에 마침내 扶民團이라고 호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부민단은 1915년 중에 편성이 시도되어, 1916년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다.¹¹⁾

부민단은 단순히 경제적 자립만을 도모한 민단조직이 아니었다. 결사대를 조직하여 무장행동을 시도하였다. 부민단에서는 1916년 3월 16일 회의를 열고, 2백 명의 용사로 決死隊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대개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으므로 일명 山獵隊라고도 불렸다. 일제가 부민단원의 주요 근거지인 통화에 영사 분관을 설치하려고 하자, 이에 맞서서 상당한 저항을 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통화 東關大街에 거주하면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던 林必東이었다.¹²⁾

임필동(1874~1930)은 수원 梅香里 출신으로, 수원양잠학교 졸업 후 상경하여 상동교회 안의 상동청년학원에서 영어·일어·측량을 공부하였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고, 1910년 10월 초 봉천성 회인현 횡도촌으로 망명하였다. 그후 신흥무관학교와 관련을 맺고, 통화현에 거주하면서 객주업에 종사하였다. 1916년 9월 당시 일제 안동영사관의 첩보에 의하면, 통화현 ‘배일자’ 중 유력자로 결사대원이라고 적혀있다.¹³⁾

그는 결사대가 결성된 1916년 당시 통화현 합니하 소재 養成中學校의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1916년 12월 조선주차헌병대사령부에서 작성한 「在外朝鮮人經營各學校書堂一覽表」에 보면, 양성중학교는 처음에 大東중학교로 불리다가 나중에 新興學校로 개칭하였고, 다시 양성중학교로 개칭되었다.¹⁴⁾ 서중석에 의하면, 大

8) 耕學社 사장을 역임한 石洲 李相龍이 1916년에 扶民團이 설립되었다고 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李相龍, 『石洲遺稿』 권2 詩, 「滿洲紀事」 7).

9) 윤병석, 「1910년대 서북간도 한인단체의 민족운동」, 『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35쪽.

10) 허은, 『하지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정우사, 1995, 82쪽.

11)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0, 「(65) 排日鮮人秘密團體狀況取調ノ件」, 국사편찬위원회, 2004, 127쪽.

12) 국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자료, 128쪽.

13) 박환,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143~149쪽.

東은 한국을 가리키므로 서간도에서 한국인의 대표적인 학교인 신흥무관학교를 가리키는 말일 수 있고, 양성 중학교란 글자 그대로 중학생을 양성하는 학교라는 뜻으로, 양성중학교가 신흥무관학교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¹⁵⁾ 이상룡의 증언에 의하면, 통화·유하 지역 소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진학하는 유일의 중학교가 신흥무관학교였던 점, 당시 李世永이 校首, 이동녕이 재무감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양성중학교가 신흥무관학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¹⁶⁾

임필동의 경우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부민단에서 조직한 결사대는 신흥무관학교 측 인사들이 주동이 돼서 조직하였다. 당시 결사대 대장이 신흥무관학교를 건립한 인물 중 한 사람인 金東三이었다고 하는 점도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 한다.¹⁷⁾ 또 주목되는 것은, 당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한 통화 주재 梅澤 순사가 안동 영사관의 古藤 경찰서장에게, 특히 신흥무관학교 측 인사들이 결사대를 편성한 것에 주목하고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부분이다.

그가 제안한 대응책은 신흥무관학교가 있는 중심부인 통화에 독립운동가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합의 본부를 설치하고, 지방에 지부를 두어 독립운동가들을 관리하고, 독립운동 자금의 출처를 끊으면, 자연스럽게 해산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¹⁸⁾ 1918년 8월부터 일제가 東省韓族生計會 회원들을 주 대상으로 한 독립운동가 회유책으로서 관판단을 조직하려고 한 것도 이때 제시된 독립운동가 관리 정책의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부민단 결사대가 신흥무관학교 측 인사들이 주동이 돼서 조직된 만큼, 대원들도 대부분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 유하현 삼원포로부터 합니하를 지나 통화로 통하는 가도로부터 약 20町 들어가는 지점에 있었던 신흥학교는 약 40명 내외의 학생을 수용하여 활발하게 병식교련을 교수하였다. 교직원으로는 교장 李元(일명 李天民), 부감 이갑수, 교사 윤기섭, 학도단장 이장녕, 학도 단부교사 김창환, 동 성준용, 경리(재무) 이호영 등이 시무하였다.¹⁹⁾

서중석은 채근식의 저서를 인용하여 교장 이천민이 李世永임을 밝히고 있는데,²⁰⁾ 그의 이명은 그밖에도 嵩, 古世, 正永 등으로 불렸다. 대한제국 正尉를 지내다 군대해산 후 서간도로 망명하여 안동현에 은거하면서 신흥무관학교와의 연계 하에 청년망명과 작전지휘를 담당하였다. 이후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였다.²¹⁾ 독립유공자공훈록에도 그의 본향이 충남 청양이라는 것밖에는 알려진 것이 없었는데, 그의 가계

14) 北野民夫, 『現代史資料』 27, みすず書房, 1970, 160쪽.

15) 서중석, 앞의 책, 115·130쪽; 박환도 양성중학교가 신흥무관학교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박환, 앞의 책, 141쪽.

16) 박성순, 「石洲 李相龍의 『滿洲紀事』 분석을 통해 본 新興武官學校의 하급교육기관 실태 - 柳河·通化縣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7, 동양고전학회, 2017, 196쪽.

17)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0, 「(65) 排日鮮人秘密團體狀況取調ノ件」, 국사편찬위원회, 2004, 128쪽. 그러나 이 자료에는 결사대 대장 김동삼을 함경북도 城津 출생이라고 기술하여 착오를 보이고 있다. 경북 안동 출신인 김동삼은 1911년 서간도로 망명하여 이시영·이동녕·이상룡·윤기섭·김창환 등과 함께 경학사·신흥강습소·부민단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백서농장의 庄主와 서로군정서의 참모장을 역임하였다. 신흥무관학교 역사의 산 증인이었던 인물이다(국가보훈처 공훈자료전시관 독립유공자공훈록 관리번호 470 김동삼).

18)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0, 「(65) 排日鮮人秘密團體狀況取調ノ件」, 국사편찬위원회, 2004, 129쪽.

19)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0, 「(224) 三源浦哈泥河地方ノ狀況ニ關スル件」, 국사편찬위원회, 2004, 332쪽.

20) 蔡根植, 앞의 책, 48쪽; 서중석, 앞의 책, 119쪽.

21)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9, 「(334) 排日鮮人ノ狀況ニ關スル件」, 국사편찬위원회, 2003, 396쪽.

를 밝힌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천민은 원래 초산군 군수 이민철의 장남으로 자를 高崗이라 하고, 종래 환인현에서 살다가 1917년 11월중 통화현 두도구로 이주하여 李元이라고 개명하였으며, 1918년 현재 신흥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²²⁾

이천민과 함께 1914년부터 안동현과 통화 주재 신흥무관학교와의 연락을 담당했던 任邦²³⁾에 대해서도 ‘원적 불상으로 통화현 합니하에 거주하며, 현재 부민단 의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독립운동가 사이에 자못 성망이 있다. 이시영의 통신을 기다려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임방의 역할이 1918년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외에도 통화현 합니하에 거주하는 이석영·이호영 등도 현재 주소에서 이시영의 통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시영이 총괄적인 지휘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²⁴⁾

서중석은 이시영이 부민단과 관련이 없었다고 했지만,²⁵⁾ 이는 표면적인 모습일 뿐 실제로 그는 1918년 당시 부민단의 전임 교육회장이자 생계회 회장인 여준과 함께 중요한 작전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설립 준비가 한창이던 생계회를 활용하여 密偵團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서 두 사람은 흑룡강성으로 출장을 갔고, 부민단원들 수 명도 이에 합류하였다. 1918년 1월부터 북경을 거쳐 흑룡강성 방면에 여행 중이던 이시영의 조치에 의해서 2월 15일 여준이 통화현 합니하를 출발하였다. 이들은 독일과 러시아를 위한 한인 밀정단을 조직하여 일제의 軍情을 탐지한 후 저들에게 통지하고, 그 대가로 국권회복의 후원을 받기 위한 밀약을 성사시키고자 하였다. 이들이 흑룡강성으로 간 것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주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삼원포로부터 이미 흑룡강성 방면으로 간 독립운동가는 8명이었고, 李燾²⁶⁾·金昌福²⁷⁾ 두 명도 흑룡강성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다.²⁸⁾

이천민이나 임방 외에도 서울 출신으로 통화현 합니하에 거주하는 金昌煥이 당시 신흥학교 교사로써 항상 학생들에게 국권회복은 청년의 의무라는 등 치열한 배일사상을 주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 출신으로 통화현 합니하에 거주하는 尹琦燮 역시 신흥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활발하게 배일사상을 고취하였다. 김창환과 함께 동교의 주요 사무를 관장하는 중견 인물로서, 동포들의 신용이 두터웠다.²⁹⁾ 채근식의 저서에 의하면, 김창환·윤기섭은 흥년으로 경학사가 해산되고, 이동녕이 노령으로, 이시영이 봉천으로 독립운동의 길을 찾아 떠났을 때에도 꾸준히 학교를 운영하고 구걸을 하면서까지 학생들을 살렸다고 기술되어 있다.³⁰⁾

2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0, 「(224) 三源浦哈泥河地方ノ狀況ニ關スル件」, 국사편찬위원회, 2004, 333쪽.

23) 任邦(弔+邦)으로도 쓴다.

24) 국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자료, 332쪽.

25) 서중석, 앞의 책, 97쪽. 경학사는 물론 共理會와 부민단이 설치되었을 때 이시영은 어떤 직위도 떠맡지 않았지만, 그가 서간도 민단조직 및 신흥무관학교와 무관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제의 자료에 의하면, 이시영은 소위 ‘서간도 중심부’ 인물로 분류되어 있어 그의 위상과 역할을 짐작케 한다(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9, 「不逞者處分」, 국사편찬위원회, 2003, 480쪽).

26) 함남 北靑 출신. 1911년 3월 서울 五星學校 졸업. 동년 유하현 삼원포로 망명하여 신흥강습소 특기반 제1기 졸업. 1913년 신흥무관학교 격검·유술교관으로 복무. 1919년 9월 일본군의 사주를 받는 마적단의 기습으로 중상을 입고 32세로 순국(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공훈록 관리번호 5203 이극).

27) 함남 洪原 출신. 1919년 3월 16일 함남 흥원 만세시위 참가. 이때 일경에 피체되어 함흥검사국으로 압송. 1919년 3월 21일 옥중에서 순국(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공훈록 관리번호 30648 김창복).

28)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0, 「(224) 三源浦哈泥河地方ノ狀況ニ關スル件」, 국사편찬위원회, 2004, 330쪽.

29) 국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자료, 332쪽.

부민단 교육회 또한 신흥무관학교의 운영을 돕기 위해서 조직되었다.³¹⁾ 이 내용은 일제측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부민단은 내부에 교육회를 두어 동포들로부터 기금을 마련하고, 그 이자로 합니하학교로 알려진 신흥무관학교의 유지비를 충당하였다.³²⁾ 김승학의 『한국독립사』에 의하면, 부민단 교육회는 全滿 동포를 회원으로 하여 매호당 연 奉天小洋 3원씩을 징수하여 신흥무관학교의 운영을 돕는 한편, 국내소식과 훈련정황 등 선무공작을 겸행하였다.³³⁾

부민단 교육회장은 신흥무관학교 교장(1913~1917)을 역임한 呂準을 거쳐 金衡植이 이어받았다. 김형식은 김대락의 아들이고, 1914년 일제자료에 이시영과 함께 ‘서간도 중심부’ 인물로 기재되어 있다.³⁴⁾ 이시영을 도와 서간도 민단 조직과 신흥무관학교 관리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준은 李鐸과 더불어 1912년부터 新興學校維持會를 조직하고 각 지방에서 재원을 각출하여 신흥무관학교의 운영을 후원하였다.³⁵⁾ 부민단 교육회도 그러한 성격을 계승한 것이다.

부민단에서는 길림성에 生氣會社라는 것을 운영하여, 장정과 군자금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1919년 4월 21일자 일제영사관 해룡 분관의 정보 보고에 의하면, 독립운동가들이 유하현 방면의 각 부민단과 소속 기독교 교회당 등을 근거로 행동하고 있으며, 길림성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조사에 의하면, 전 부민단 團總이었던 李沍을 위시하여 임방·이시영·여준·김동삼 외 34명의 신흥무관학교 측 인사들이 길림성 德勝門 밖 한인부락 내에 생기회사라는 단체를 만들고, 유하현의 부민단과 공조하였다. 생기회사의 사장은 임방이었고, 부민단과 공조하여 한국독립의 선전을 위해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부민단 또는 생기회사라는 이름으로 독립운동에 필요한 장정과 자금을 한인 각호로부터 모집하였다.³⁶⁾

이처럼 부민단의 활동은 길림 지역에까지 미칠 정도로 활발하였다. 그 결과 신흥무관학교 인근 지역인 환인·집안현 내에 산재한 조선인조합³⁷⁾ 지부 중에서는 부민단원의 위세를 감당하지 못해 지부의 사무를 폐하고 부민단 사무에 종사하는 지부까지 생겨났다. 또 종래 친일적 경향이 있는 이주 한인들도 일본관헌 또는 조선인조합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일본 관민이나 일본관헌에 고용되어진 한인들의 지방여행은 자못 위험할 정도로 위협적인 상황이었다.³⁸⁾

30) 채근식, 앞의 책, 49쪽.

31) 김승학, 앞의 책, 354쪽.

3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0, 「(206) 排日鮮人ノ狀況等報告ノ件」, 국사편찬위원회, 2004, 305쪽.

33) 김승학, 앞의 책, 354쪽.

34)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9, 「不逞者處分」, 국사편찬위원회, 2003, 481쪽.

35) 채근식, 앞의 책, 49쪽.

36)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1, 「(40) 鮮人ノ獨立運動ニ關スル件」, 국사편찬위원회, 2005, 72쪽.

37) 일제는 만주지역에 친일단체인 조선인조합을 설치하여 독립운동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주용, 「1910~1920년대 남만주 친일조선인 단체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참조.

38)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7』, 「獨立運動에 관한 건(국외 제52보) : 압록강방면」(1919.4.26)

Ⅲ. 생계회의 조직과 목적

생계회는 東省韓族生計會³⁹⁾ 뜻한다. 신흥무관학교 교장과 부민단 교육회장을 역임한 여준이 생계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부민단 및 신흥무관학교 측 활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동성한족생계회의 수립은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내용이 뚜렷하게 파악되지 못했다. 서평일이 「중국·만주에서의 3.1운동」이라는 글에서 생계회에 대해서 언급하긴 하였지만, 사실 관계가 잘 맞지 않는다. 1919년 4월 정안립과 여준이 중심이 되어 3.1운동 후 망명 동포 구제를 위해서 東三省韓族生計會를 조직했다고 기술하였는데,⁴⁰⁾ 생계회의 구체적인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설립 연대조차도 불분명하다.

생계회 설립 시점은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독립운동가들은 1917년 길림성 督軍 孟恩遠에게 장래 無償官有地를 貸付 받아 국권회복을 위한 원조 및 특별 보호를 받고, 그 대가로 그를 위해 밀정 및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당시 흑룡강성 서부의 교통 요지인 치치하얼 [齊齊哈爾]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金弼淳⁴¹⁾이 중심이 되어 동서 간도 각 지방의 독립운동가들을 권유하였는데, 이에 응하는 자가 3백여 명 이상이 되었다. 이로써 단체를 조직하고 無償 토지를 경작하여 생계를 풍요롭게 한다는 뜻으로 명명한 生計會를 조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917년 10월 18일 맹독군에 대한 길림독군 면직 조치가 내려지면서⁴²⁾ 밀약은 자연 소멸되었고, 생계회 조직 계획은 실패하였다. 그렇지만 맹독군이 실제로 길림독군의 인장을 반납한 1919년 8월 5일까지 위세를 유지했으므로, 그의 비호가 필요했던 한인 독립운동가들은 길림을 새로운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활용하였다. 이 무렵 여준을 비롯한 신흥무관학교와 부민단 관계자들이 길림에 근거지를 마련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였다.⁴³⁾

둘째 생계회 조직의 2차 시도로, 생계회를 조직하기 위한 부민단 인사들과 노령 인사들과의 협의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령 烟秋에 있는 독립운동 지도자 李範允이 1918년 1월 중 동지 4·5명과 함께 길림으로 와서 鄭安立⁴⁴⁾을 방문하고, 생계회의 설립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또 당시 노령 하바롭스크에서 활동 중인 독립운동가 李東輝 역시 1918년 2월 길림으로 와서 정안립 집에서 수일간 체재하면서 생계회에 관한 밀

39) 東省韓族生計會는 東三省韓族生計會의 줄임말로 볼 수 있어, 실제로 두 명칭이 혼용되어 쓰인 경우가 더러 있다. 그렇지만, 「東省韓族生計會簡章」第1章 總綱 第1條에 의하면, 「本會定名爲東省韓族生計會」라고 되어 있어, 본 회의 정식명칭은 東省韓族生計會임을 알 수 있다.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6』, 「排日鮮人の動靜에 관한 건」(1918.4.11), 220쪽.

40)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453쪽.

41) 황해도 長淵 출신. 1911년 망명하여 李東寧·全秉鉉 등과 함께 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기지 개척에 힘썼다. 그후 내몽고 치치하얼에 수십만 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이곳에 100여 호의 한인들을 이주시켜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의 후방 기지로 개척하고자 하였다(공훈전자자료관 독립유공자공훈록 관리번호 960161 김필순).

42) 이 조치는 봉천군벌 張作霖이 최고권력자인 段祺瑞에게 참소한 결과였다.

43)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0, 「(224) 三源浦哈泥河地方ノ狀況ニ關スル件」, 국사편찬위원회, 2004, 330쪽.

44) 본명 鄭永澤(1873~1946). 충북 진천 출생. 16세에 사마시 생원과 합격 후 법관양성소와 한어학교 졸업. 헤민원 주사, 법관 양성소 교관, 보성전문 교감, 신민회 회원, 보성전문 교장, 양성 군수 역임. 1910년 길림성으로 망명 후 鄭安立으로 개명(1911), 여준 등과 함께 동성한족생계회 조직, 「대한독립선언서」 발표, 파리강화회의 '조선독립인' 제출 계획 수립에 참여. 상해에서 동아국제연맹(1933~1940)을 조직하여 일본, 중국 등을 무대로 활동 중 일제 고등계형사에 의해 서울로 압송되어 중부서에 감금되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정안립).

의를 진행하였다. 일제의 자료에, 생계회가 조직된 후 노령 우수리스크의 한족회 및 북미 국민회 등과 비밀히 기맥을 통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 것을 보면,⁴⁵⁾ 생계회는 노령의 한족회와 북미의 국민회에 대응하는 만주 지역의 한인 결사체로서 조직된 것이다.

이와 같이 생계회는 1914년부터 부민단 및 신흥무관학교의 중심무대인 서간도지역 독립운동가들이 노령 및 미주 지역과 연대를 도모했던 노력의 결과였다. 1914년 무렵부터 이시영이 서간도 제 단체를 통합하여 중앙교회라고 명명하고, 그 본부를 신흥무관학교가 있는 통화현 합니하에 두고統領이 되어 미주 대한인국민회의 일 지회가 되었던 것, 또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서간도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만주와 노령, 그리고 미주를 연결하려고 했던 통합운동의 결실이 생계회의 설립으로 나타난 것이다.⁴⁶⁾

생계회 설립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은 정안립이었다. 1918년 1월 韓族墾民代表 명의로 정안립이 작성한 생계회 설립 취지 및 계획은 1월 10일부터 18일 사이에 중국 외교부·내무부·농상부의 비준을 받았다.⁴⁷⁾ 그에 따라 東省韓族生計會는 1918년 4월 13일-14일 양일에 걸쳐서 총회를 열어 회의 명칭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총회장소는 13일에는 길림성 소동문 밖 정안립의 집, 14일에는 길림 소동문 밖 중국요리점인 羊陽館이었다.⁴⁸⁾ 이날 있는 임원선거에서 신흥학교 교장과 부민단 교육회장을 역임한 여준이 정회장에 선출되었다. 정안립은 회계감사원에 선임되었다. 이동휘가 고문에 선임되었는데,⁴⁹⁾ 이는 생계회가 노령 세력과의 연계를 고려한 조치였다.

총회 마지막 날인 14일 정안립은 연설을 통해서 생계회의 조직이 일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고, 동포와 협력하여 국권회복의 실력을 기르는 데 있다고 천명하였다.⁵⁰⁾ 정안립이 생계회 조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을 고려하면, 생계회의 목표가 국권회복의 실력을 기르는 데 있다고 한 그의 말은 생계회의 본래 취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측에서도 이 회를 생계회라고 부르지 않고 한국독립회라고 부르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관련들도 어떤 취체나 경계를 더하지 않고 거의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일부 중국 관민은 정안립을 안중근에 비유하며 칭송하였다. 특히 군경 등은 정선생이라 존칭하면서 상당한 대우를 해주었다.⁵¹⁾ 이는 중국인들에게조차 생계회가 독립운동 단체로 인식되고 있던 상황임을 보여준다.

생계회의 명칭에서 보여 지듯이 겉으로 표방한 목표는 만주 한인동포의 자생기반 확보였다. 東省韓族生計會 簡章을 보면 본회는 실업을 장려하고, 疾苦를 면제하는 것을 중지로 삼았다. 사업 범위는 7개로 구분했는데, 1) 농상공광림 확장, 2) 수전 개척, 3) 은행 설립 및 저축, 4) 伸訴冤枉, 5) 救恤危難, 6) 교육발달, 7) 書報 편찬 등이었다.

4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7』, 『東省韓族生計會 組織에 관한 건』(1918.5.29), 24쪽.

46)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9, 「不逞者處分」, 국사편찬위원회, 2003, 476쪽.

4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6』, 「排日鮮人の動靜에 관한 건」(1918.4.11), 228~232쪽.

48)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7』, 『東省韓族生計會 組織에 관한 건』(1918.5.29), 13~16쪽.

49) 위의 자료, 16~19쪽.

50) 위의 자료, 22쪽.

51) 위의 자료, 25쪽.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국권회복운동은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첫째 여준과 정안립이 길림독군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청원서를 북경에 전달하는 것이고, 둘째 러시아와 일본, 독일과 일본의 충돌을 예상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무장병단(일제는 이것을 ‘폭동단’으로 기재하였다. 필자 주)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에 나서는 것이었다.

동성한족생계회에서는 실제로 북경에 대표를 파견하기 위한 기구인 북경정부 파견 대표단을 조직하였다. 「북경정부파견대표 幾人件」에 보면, 회장 여준, 부회장 김약연, 총무부장 李沍, 서기 허혁 등의 이름이 보이고, 정안립은 대리회장으로 되어 있다. 발기인으로는 맹보순, 양기탁, 정안립, 여준, 허혁, 李沍, 李鐸, 임방, 왕삼덕, 곽문, 이철영, 김동삼, 김형식, 이장녕, 李倬 등 애초부터 부민단 및 신흥무관학교 측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망라되었고, 지역적으로는 吉林, 穆陵, 撫松, 樺甸, 奉天, 海龍, 柳河, 桓仁 등에 거주하는 120여 명 정도 인사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⁵²⁾

부민단이 길림독군의 비호 아래 생계회를 통해서 운동의 범위를 확장하자, 이를 우려한 일제가 생계회 인사들에 대한 회유책을 구사하였다. 1918년 8월 5일 친일파 張宇根⁵³⁾이 일본 총리대신과 면회 후 재만 배일 한인 관광단을 조직하여 일본 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을 접견케 하고, 소위 이은 전하를 알현케 하며, 이밖에도 재만 한인 포섭을 위해서 토지금융을 대부하고, 귀순 한인에게는 각지의 관광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일제가 포섭대상으로 선정한 재만 독립운동가들은 다음과 같다.⁵⁴⁾

〈표 1〉「在滿鮮人 排日首領者 姓名」

姓名	現住所	前職別	元籍地名
李始榮	柳河縣	法部局長	京城
鄭安立	吉林	首領	京畿道 ⁵⁵⁾
李範允	柳河縣	義兵大將	同
李東輝	同	參領	咸鏡道の 第一
洪範圖	同	義兵大將	京畿道 ⁵⁶⁾
梁起鐸	西間島	同	平安道の 第一 ⁵⁷⁾
李東寧	柳河縣	李始榮의 參謀	京城 ⁵⁸⁾
張鳳翰	同	李의 司令官	同
曹煜	同	義兵司令官	同

52)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6』, 「排日鮮人の動靜에 관한 건」(1918.4.11)

53) 1873년 3월 16일~미상. 본관은 德水, 본적은 京城府 東大門外 新設里. 1896년 東京 경찰감옥학교 졸업. 1905년 함경북도 변계정무서 충순, 1906년 경무관 재직 시 홍주의병 진압 현지파견대로 활동. 1907년 충추원부찬의, 1908년 경시청 경시, 1910년 조선총독부 경시로 약 2년간 활동.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수훈. 이후 만주 鐵嶺으로 이주하여 1917년 鐵嶺育英學校 설립 및 초대 교장, 1918년 철령조선인회 고문,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촉탁, 鐵嶺朝鮮人民會 회장 역임. 1935년 조선총독부 시정 25주년 기념표창 수훈(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張宇根).

5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7』, 「圖們江方面 情況彙報」(1918.10.1), 141~143쪽.

姓名	現住所	前職別	元籍地名
趙孟善	同	義兵首領	黃海道 ⁵⁹⁾
李相龍	同		慶南道의 第一 ⁶⁰⁾
尹世福 ⁶¹⁾	同	義兵首領	同 ⁶²⁾
金虎翼	撫松	司令官	咸南
李鴻周	西間島	同	同
柳東說	蘇王嶺	參領	平安道 ⁶³⁾
孟東田	吉林	義兵連絡者	水原
李珪	北間島	洪州義兵	忠清道
安重七 ⁶⁴⁾	穆陵	安重根의 弟	黃海道
李鍾澤	北間島	義兵	忠清道
金鵬	吉林	同	京畿道
申檀	上海	同	同 ⁶⁵⁾
成浩	撫松	同	同
李鐸	柳河縣	義兵	平安道
金敎獻	北間島	學士	京城 ⁶⁶⁾
申采浩	上海	每日新聞 主筆	忠清道
許燐	柳河縣	義兵大將	慶尙南道
呂準	吉林	生計會長	京城 ⁶⁷⁾
吳周煥	長白府	義兵	咸鏡道
朴純	吉林		京畿道

55) 충북 진천의 착오임.

56) 평북의 착오임.

57) 평양을 가리킴

58) 충남 천안의 착오임.

59) 황해도 평산.

60) 경북 안동의 착오임.

61) 尹世復의 착오임.

62) 경남 밀양의 착오임.

63) 평북 박천을 가리킴.

64) 安定根을 가리킴.

65) 충북 청원의 착오임.

66) 경기도 수원시의 착오임.

67) 경기도 용인의 착오임.

그러나 일제의 기도는 실패로 귀착되었다. 장우근은 여준을 동삼성 배일파의 거두로 인정하고, 여준 이하 4명을 만나 일본 관광에 대한 일을 조율하였으나, 그들은 장의 권유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일본 관헌을 접하는 것을 꺼려하였다.⁶⁸⁾ 장우근과 일제 길림 및 철령 영사 등이 협력하여 길림에서 관광단원 권유에 진력하였지만, 정안립이 동지들에게 일본 관광의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며 방해하였고, 여준 등 유력한 인물의 거취도 결정되지 않아서 소기의 계획을 달성할 수 없었다. 게다가 장우근이 병에 걸려 입원하면서, 재만 한인관광단 인선 자체가 곤란에 빠졌다.⁶⁹⁾

결국 일본 관광단을 조직해 재만 독립운동가들을 회유하려던 일제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생계회는 당초 계획대로 국권회복운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었다. 여준과 정안립이 길림독군에게 조선 독립청원서를 전달하고, 만국강화회의(이하 파리강화회의 - 필자 주)에 제출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노령 및 중국 등지에서 군자금 및 청장년을 모집하고, 무기를 구입하였다.

1919년 4월 13일자 일제 정보문건에 의하면, 동성한족생계회 '수령' 여준·정안립 등은 남만주 한인의 독립청원서를 작성, 길림성 孟督軍에게 청원하여 중국정부의 손을 거쳐 공식으로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독립 승인을 제출하기 위해서 동삼성 각 현 한인에게 격문을 발송했다. 한인들은 이에 호응하여 연명으로 된 청원서를 길림으로 발송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였다.⁷⁰⁾

생계회는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청원과 더불어 실력행사 계획도 병행하였다. 1919년 4월 26일자 일제 정보문건에 의하면, 이시영·여준 등이 '폭동단'을 조직했는데, 폭동단원 5백여 명이 안동현을 거쳐 국내로 들어가 폭동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환인현 및 집안현 내의 조선인조합 지부는 이들의 위세에 눌려 오히려 부민단 사무에 종사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⁷¹⁾

실제로 부민단원들을 포함한 서간도지역 한인들이 국내 진입을 시도하다가 중국 관헌과 충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919년 3월 29일 삼원포 지방의 기독교인과 부민단원 60명이 拉石畝 교회당에 모였고, 31일 오전 10시 경에는 부근에서 기독교·천도교인들을 포함한 동포들 약 6백 명이 모여들어 '한국독립만세'를 부르고, 애국가를 합창한 후 손에 태극기를 들고 '한국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부근을 행진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이르러 유하현 삼원포, 통화현 합니하, 흥경현 왕청문 지방의 기독교·천도교·부민단원 약 5백 명이 왕청문 기독교교회당에 모여 국내로 들어가 확실하게 독립운동을 결행할 것을 협의하던 중 중국 관헌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다가 충돌하였다. 그 결과 9명의 사망자를 낸 끝에 해산하였고, 60명은 전술한 납석차 교회당으로 돌아갔다.⁷²⁾

68)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0, 「(289) 森林借款問題ト京城視察團員ノ件」, 국사편찬위원회, 2004, 445쪽.

69)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0, 「(328) 鮮人一行旅大觀光ニ關シ報告ノ件」, 국사편찬위원회, 2004, 504쪽.

70)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7』, 「獨立運動에 관한 건: 도문강방면, 노령, 압록강방면」(1919.4.13);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4, 「在外鮮人ノ獨立運動概況1919年4月26日」(1919.4.26).

71)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7』, 「獨立運動에 관한 건(國外 제52보): 압록강방면」(1919.4.26).

72)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7』, 「獨立運動에 관한 건(國外 제34보): 圖們江方面, 鴨綠江方面」(1919.4.17).

Ⅳ. 급진단의 활동과 성격

생계회장 여준은 1919년 10월 직접적인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일제는 당시에 여준을 ‘불령선인의 두목’으로 지목하였고, 그가 각지에 밀정을 파견하여 일본 관헌의 행동을 시찰 중이라고 파악하였다.⁷³⁾ 1919년 10월 29일자 길림 총영사 森田이 외무대신 內田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길림 지방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여준을 단장으로 하는 急進團⁷⁴⁾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여준 및 尹世福(尹世復의 오자-필자 주)⁷⁵⁾ 2인은 10월 12일 길림에 와서 중국 여관에 체재하면서 한인 지사를 규합하고 독립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다. 길림영사관을 지나 약 20리 서남에 있는 소백산⁷⁶⁾ 부근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였다.

길림영사관 밀정의 보고에 의하면, 이들은 근일 군용총 5백 정을 하얼빈으로부터 길림으로 밀수하기 위해서 기차로 寬城子로 옮기고, 그곳에서 길림선 長春역으로부터 다시 기차로 수송하여 九站驛(길림 바로 앞역)에서 하차 후 樺甸縣으로 수송할 계획이었다. 해당 총은 러시아제로 러시아로 귀화한 한인 장교의 손에서 八面城 부근에서 구입된 것인데, 이와 같이 각지로부터 급진단으로 모일 총기의 수는 약 3천 정이었다.⁷⁷⁾

총기의 숫자는 일치하지 않지만, 실제로 여준에 의해서 러시아로부터 총기가 반입되었다. 11월 18일자 관동헌병대 보고에 의하면, ‘지난번’ 東支鐵道沿線에서 독립군의 병기수송 정보와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이던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길림을 근거로 하는 ‘독립운동 한인 수령’ 여준은 니콜리스크 방면으로 독립운동가들과의 연락을 위해 갔다가 돌아올 때 러시아 군총 7백 정을 수송해 왔다. 10월 하순(일시 불상) 吉長線 九站에 와서, 동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급진단원에게 인도하여 육로로 길림성 내 牛馬行 중국 객잔 源發店에 은닉하고, 2·3일 후 해당 총기를 樺甸縣으로 수송하였다. 중국 객잔과의 교섭은 체재 중인 한인 선교사 裨心農이 맡았다.⁷⁸⁾

여준이 니콜리스크에서 반입한 총기는 서간도와 북간도의 경계지점인 화전현에 보관되었다. 그리하여 이 총기는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비슷한 시기를 다룬 『고등경찰요사』에 “만주에서의 불령의 도배들이 1920년 1월 이후 러시아 과격파와 결탁하여 많은 무기를 입수하여 한때

73)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1, 「(288) 樺甸縣內二頭目呂準潛入說其動靜ノ件」, 국사편찬위원회, 2005, 380쪽.

74) 1919년 3.1운동 직후 혼춘에서도 혼춘대한국민회 교제과장으로 있던 黃炳吉이 그 산하단체로 급진단을 조직하였다. 독립군 양성과 국내 진입작전을 벌이고, 청산리전투에는 洪範圖가 이끄는 연합부대에 편성되어 일본군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다(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506쪽).

75) 경남 密陽人. 1909년 영남에서 安熙濟·李元植·金東三 등 80여 명과 함께 대동청년당 조직. 1910년 12월 대종교 입교. 친형 尹世茸과 함께 1911년 2월 만주 환인현으로 망명하여 東昌學校를 설립하고 민족교육에 주력함. 1919년 呂準·鄭安立·朴性泰·朴贊翊·鄭信·柳東說·申八均 등 38인과 함께 대한독립선언서 발표. 그후 무송현에서 白山學校 설립. 1919년 7월 興業團을 조직하여 총무가 됨. 1921년 10월 흥업단이 군비단·광복단·대진단·태극단과 통합하여 대한국민단을 조직하자 議事部長이 됨. 1924년 대종교 제3세 교주가 됨. 1942년 11월 19일 임오교변 때 金永肅·尹斑鉉·崔冠·李在圃·李楨·權相益·羅正鍊 등 20여 명과 함께 체포되어 무기형을 받고 옥중 광복으로 출옥(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공훈록 관리번호 3765 윤세복).

76) 10월 15일자 정보문건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길림성 소백산을 장백산으로 기재하는 등 내용의 오류가 있다. 小白山은 龍潭山, 朱雀山, 北山, 望云山, 魏台山과 함께 길림시 주변에 있는 六山 중 하나이다.

77)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1, 「(365) 普通報 第七號」, 국사편찬위원회, 2005, 481쪽.

78)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内地 9』, 『鮮人騷擾事件』(1919.12.2).

는 북간도 방면에 약 3,000명의 무력단을 거느리고 활발히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그러한 사실을 방증한다.⁷⁹⁾

1919년 12월 24일 軍政司 급진단원 여준·박찬익·신상무·손일민·김영일·강인보·배량 등 20여 명은 길림 虎門 밖 군정사 사무소에서 회동하여 비밀회의를 열었다. 좀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당일 여준의 설명에 의하면, 급진단원은 현재 서·북간도에 3만 명이 있고, 북만주, 시베리아에 통산 실수 10만에 달한다고 하였다. 문제는 경비가 결핍할 때 어떻게 군정사를 유지하며, 또 급진단에 무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에 박찬익은 무기는 이미 니콜리스크의 동지로부터 分與의 약속이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운반에 지장이 생기면, 곧 운반 방법을 강구하면 되지만, 오직 우려되는 것은 경비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부금·보조금 등에 의해서는 수입을 충당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자신들의 사업도 자못 곤란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상수단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여준·박찬익 및 중국인 趙佐卿 3명은 무기운반 방법 및 ‘급진결사대’ 출동에 관한 합의 등의 긴급 용무를 띠고 12월 28일 니콜리스크를 향해 출발했다.⁸⁰⁾

급진단 외에 少年團이라는 무장단체도 재외 한인사회에서 조직되었다. 1919년 11월 5일자 森田 길림총영사가 內田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독립운동가들이 현재 남북 만주 각지에서 비밀결사 소년단이라는 것을 조직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폭탄의 제조 및 암살로부터 점차 국내에 진입하여 독립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소년단 지부의 소재지는 8개 소에 달하고 총 단원은 1천7백 명에 이르렀다. 주목되는 것은 여준을 단장으로 하는 급진단이 길림소년단과 곧 합체할 계획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⁸¹⁾ 여준이 길림 지역의 무장단체를 통합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다.

〈표 2〉 각지 소년단 현황(1919.11)

所在地	團員數	團長名
上海 본부	약 5백 명	徐哲
니콜리스크 지부	약 2백 명	田一
北間島 지부	약 3백 명	不詳
西間島 지부	약 350명	崔賢吉
八面屯 지부	약 50명	李明善
哈爾濱 지부	약 1백 명	申泰鉉
吉林 지부	약 30명	郭敬
치타 지부	약 2백 명	不詳

79) 류시중 외 역, 『국역 고등경찰요사』, 선인, 2010, 168쪽.

80)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2, 「(82) 國外情報」, 국사편찬위원회, 2006, 91쪽.

81)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1, 「(378) 鮮人秘密結社ニ關シ報告ノ件」, 국사편찬위원회, 2005, 503쪽.

당시 여준이 운용할 수 있었던 만주 지역의 무장 단체는 급진단·소년단과 더불어 결사대가 있었다. 1920년 1월 10일 상해 임시정부 위원단이 길림에 도착하여 군정사 간부들과 국내 침공 작전에 대해서 논의하였을 때 여준이 지휘하는 군정사가 소년단·결사대·급진단을 통할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해된다.⁸²⁾

군정사란 대한독립의군부를 개편한 길림군정사를 말하는 것이다. 대한독립의군부는 1919년 2월 길림 여준의 집에서 여준·박찬익·황상규·김좌진·정원택·정운해 등이 모여 조직하였고, 여준이 정령으로 추대되었다. 길림군정사는 1919년 3월 길림에서 대한독립의군부를 개편하여 길림군사독판부로 조직되었고, 여준이 단장이 되었다. 여준·이상룡·유동열·박찬익·조성환·김좌진 등이 조직하였고, 김좌진·조성환·박찬익·박성태 등 대중교인이 다수 가담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나중에 서일의 대한정의단과 결합하여 북로군정서를 결성하였다.

상해 임시정부위원 송모, 이모 양인은 1월 10일 길림에 도착하여 군정사 역원에 대해서 임시정부의 內意를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임시정부가 1920년 3월 중순을 기해 국내에 진격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통신원을 파견하였고, 내외 각지에 있는 독립군이 일제히 호응하여 연락 중이라고 하였다. 군정사 단원도 급히 무기의 조종법을 습득하여 2월 하순 서간도(지명 불상)에 독립군의 집합을 마치고 임시정부의 통지를 기다려 內示를 받을 것, 그런 후 군정사의 소년단·결사대·급진단이 적극적으로 본 기획에 호응하여 거사할 필요가 있으며, 결사대원을 모집하기 위해 1월 12일 樺甸縣·額穆縣 지방에 20여 명의 모집원을 파견시키는 데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이동휘는 1월 하순 길림에 온다고 하였다.⁸³⁾

결사대는 애초에 1916년 3월 부민단의 무장단으로서 출범하였다. 1919년 10월 유하현 삼도구에 거주하는 전 부민단 검찰장 박치세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유하현 대사탄에서 17, 8세 이상의 남자들로 의무적으로 결사대를 조직할 목적으로 3개월 간의 속성훈련을 실시하였다. 결사대 유지비용은 각호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충당하였다. 결사대는 압록강을 건너 국내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었다. 만일 도섭이 불가능할 경우는 결빙기를 기다려 국내로 들어가 무력으로써 거사할 계획이었다.⁸⁴⁾

결사대의 후원세력은 부민단을 이어 한족회로 계승되었다. 유하현 삼원포 한족회의 중심부는 대사탄이었다. 1919년 10월 현재 한족회 총장은 李拓(李沔의 오기 - 필자 주)이었고 사무소는 삼원포 시가 남단에 있었다. 대사탄은 한족회 제1구였고 대사탄단 총리는 南相復이었다.⁸⁵⁾ 그는 신민회 인사들이 서간도로 망명할 때 충청도 대표로 참여하였고,⁸⁶⁾ 부민단의 제1구 단총리를 역임했으며,⁸⁷⁾ 이후 한족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였다.⁸⁸⁾ 1918년 당시 일제의 정보보고에, 현시에 있어서 배일파의 최유력자는 대사탄에 근무하는 남상복이라고 한 것을 보면, 1919년 5월 이후 한족회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대사탄의 핵심 세력은 여전히

8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2, 「(82) 國外情報」, 국사편찬위원회, 2006, 91쪽.

83)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2, 「(82) 國外情報」, 국사편찬위원회, 2006, 92쪽.

84)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1, 「(285) 普通報(支那) 第四五號」, 국사편찬위원회, 2005, 375쪽.

85)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4, 「국외정보 1919년 10월 13일 고경제28814호」.

86) 김승학, 앞의 책, 346쪽.

87) 서중석, 앞의 책, 103쪽.

88) 서중석, 위의 책, 161쪽.

부민단 관계자들이었음을 보여준다.

일제의 정보에 의하면, 삼원포의 한족회 및 독립단이 주가 되어 각지 지부와 제휴하여 청년을 모집하고 주야로 병식조련에 열심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동휘 명의로 다수의 軍銃이 배급되고 있다는 정보와 함께 1920년 3월 한국 내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이에 호응하여 기세를 떨치고 국내를 습격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는 내용도 부기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재외 독립운동계 전반에 연결된 계획으로 파악하였다.⁸⁹⁾ 또 해룡 영사분관에서 밀정을 파견하여 실상을 내탐한 결과 결사대원들의 병식훈련은 확실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⁹⁰⁾ 1920년 8월 이탁이 지휘한 이완용 암살단에 포함된 대사탄 거주 손창준(22)도 대사탄 한족회 결사대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⁹¹⁾

1920년 4월 2일자 琿春 부영사 秋洲郁三郎이 외무대신 內田康哉에게 보고한 정보 문건에 의하면, 東寧縣 러중 국경 지방에 있는 ‘불령선인’으로서 ‘과격파’와 통하고 있는 자 약 6백여 명의 집단 중 약 3백 명은 각자 총기를 휴대하고 3월 23·24일경 여준 및 秦丹山의 인솔 하에 茂山間島 방면으로 들어가 두만강 상류의 도십지점을 선택하여 국내로 진입한다는 것이었다.⁹²⁾ 진단산(이명 秦檀山·秦學新)은 1919년 4월 연길현 명월구에서 이범윤을 총재로 조직된 義軍府의 참모장이었다.⁹³⁾ 급진단을 포함한 만주지역 무장단의 무장과 국내 침투계획은 앞서 언급한 일제 해룡영사관의 분석처럼, 재외 독립운동계 전반이 연관된 연합작전의 성격을 띠었다.⁹⁴⁾

이는 장차 벌어질 청산리 전투의 서막이었다. 독립군의 국내 진입작전이 활기를 띠자,⁹⁵⁾ 1920년 5월 일제는 ‘중·일합동수색대’를 편성하여 한족회 탄압에 들어갔다. 그 결과 1920년 7월경 신흥무관학교 교성대는 안도현 산중으로 들어가 얼마 후 홍범도 부대와 합류하여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였다.⁹⁶⁾ 교성대 뿐 아니라,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를 주도하여 조직하였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배경에는 여준이 단장을 역임했던 군정사 인물들 중에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를 결성하고 이끄는 핵

89) 1919년 당시 여준의 급진단 뿐만 아니라, 장백현 팔도구 江岸 약 2리 지점에 결사대 1천 명 이상이 집합하여 국내 잠입을 위해서 홍범도의 명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9월 25·26일 경 대한독립단 중앙총단장 조맹선이 모아산에 와서 결사대 4백 명을 두도구, 이도구에 잠복시키고 후속부대 1천 명을 모아산에 집중시켜 10월 1일 始政記念日 오후 1시를 기해 중강진으로 진격할 계획을 수립한 것도 만주 독립운동세력들의 공통된 생각으로 볼 수 있다『한국독립운동사자료』 41, 「(365)普通報 第七號」(1919.10.29)】.

90)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1, 「(328)機密公第一號 在外鮮人ノ暴舉計劃ニ對スル當地方狀況報告」, 국사편찬위원회, 2005, 428쪽.

91) 『동아일보』 1920.9.3, 「이완용을 암살하려다 피체된 이탁 등 16명의 예심이 경성지방법원에서 결정되어 공판에 회부케 되다」.

9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2, 「(261) 不逞鮮人ノ茂山間島入込ニ關スル件」, 국사편찬위원회, 2006, 291쪽.

93) 채근식, 앞의 책, 75쪽.

94) 1919년 2월 1일 길림에서 여준을 비롯한 김동삼·유동열·김좌진·신팔균·서일·김규식·이동녕 등 만주와 연해주·중국·미국 등 국외에서 활동 중인 독립운동가 39인의 명의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외교독립론이 아닌 전쟁을 통한 독립 쟁취를 주장한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歐米 3』, 『大韓獨立宣言書(戊午獨立宣言書)』(1919.2)).

95) 서로군정서는 설립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내로 침투하여 주재소, 관공서 등을 습격하였다(박환, 「서로군정서」, 『만주한 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1, 57쪽; 황민호·홍선표, 『3·1운동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42쪽).

96) 서중석, 앞의 책, 240쪽.

심인물들이 망라되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금까지 부민단의 세력 확대에 주력했던 여준은 한족회의 무장조직인 서로군정서의 부독판을 맡았다. 북로군정서가 결성될 때에도 신흥무관학교 교관이던 이장녕·이범석을 비롯해 졸업생 김훈·오상세·박영희·백종열·강화린·최해·이운강 등이 교관으로 초빙되어 북로군정서의 주요 간부를 맡았다. 이들 신흥무관학교 관계자와 졸업생들은 북간도지역 독립군부대들과의 연합작전을 전개하여 1920년 10월 청산리대첩을 거두었다.⁹⁷⁾

부민단에서 한족회로 이어지는 1910년대 후반의 시기는 서간도 독립운동의 정체기가 아니라, 생계회를 이용하여 만주 이주 한인의 자생책 마련과 국권회복의 방책을 실현하던 시기, 급진단과 결사대를 이용하여 무기를 마련하고 국내 진공작전을 도모하던 도전과 모색의 시기였다. 그리고 그 노력의 효과는 곧 이어 전개된 청산리대첩을 통해서 구현되었다.

V. 맺음말

본고는 부민단이 조직되는 1916년부터 한족회가 조직되는 1919년 5월 직후까지의 시기를 다루었다. 그동안 각종 자료나 연구에서 한족회 및 서로군정서 설립 이후의 사실들은 잘 규명되어 왔지만, 1916년부터 1919년 사이의 시기는 부민단이나 신흥무관학교와 관련된 활동내용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활동내용이 서간도 독립운동의 일관된 지속성과 그 외연을 살펴보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검토하였다.

부민단은 경학사를 이은 민단조직이었지만, 한인동포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결사대를 조직하여 무장행동을 시도하였다. 1916년 3월 2백 명의 용사로 결사대를 조직하여, 일제의 통화 영사분관 설치에 저항하였다. 결사대 대장은 경학사·신흥강습소·부민단을 조직 운영한 김동삼이었고, 대원들도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졸업생들로 구성되었다. 부민단은 이밖에도 신흥학교유지회를 계승한 부민단 교육회를 조직하여 신흥무관학교의 운영을 후원하였다. 또 신흥무관학교 측 인사들은 길림성에 생기회사를 설립하여 유하현의 부민단과 공조하면서, 독립운동의 활동범위를 확장하였다. 요컨대 부민단과 신흥무관학교는 인적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1918년 4월 길림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망라된 동성한족생계회가 발족하였다. 생계회의 초대회장은 신흥학교 교장과 부민단 교육회장을 역임한 여준이었다. 여준을 비롯한 신흥무관학교측 인사들은 길림독군 孟恩遠의 후원을 입어 길림지역으로 활동범위를 확장하였다. 생계회는 겉으로 만주 한인동포의 자생기반 확보를 목표로 하였지만, 길림독군을 통해서 한국 독립청원서를 북경에 전달하거나, 무장병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에 나서는 등 국권회복 운동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동회 설립 단계에서부터 노력에서 활동하는 이범

97) 한시준, 「신흥무관학교와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15~16쪽.

윤·이동휘 등과 밀의를 거치면서 노령 한족회 및 북미 국민회와 공조하는 만주 지역의 대표적 한인 결사체로 자리 잡았다.

생계회장 여준은 1919년 2월 길림에서 박찬익·황상규·김좌진·정원택·정운해 등과 함께 대한독립의 군부를 조직하여 정령에 추대되었고, 그해 3월에 이상룡·유동열·박찬익·조성환·김좌진 등과 함께 길림 군사독판부, 즉 군정사를 조직하여 단장이 되었다. 그해 10월 군정사 밑에 급진단이라는 비밀무장결사를 조직하고 역시 단장에 추대되었다. 급진단은 길림에 사무소를 두고, 하얼빈·니콜리스크 등지에서 무기를 수입하고 병사를 모아 국내 진공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내 진공계획은 재외 독립운동계 전반이 추진하고자 했던 공통작전의 성격을 띠었다. 1920년 3월 여준의 급진단·결사대가 의군부 참모장 진단산의 부대와 함께 무산 간도 방면으로 국내 잠입을 시도한 것도 그 하나의 결과였다.

자료의 한계상 급진단을 통한 무장투쟁의 전과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부민단 및 신흥무관학교 측 인사들에 의해서 지속된 무장대오의 구성과 연성은 장차 벌어질 청산리 대첩의 서막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부민단에서 한족회로 이어지는 1910년대 후반의 시기는 서간도 독립운동의 정체가 아니라, 생계회를 이용해서 만주 이주 한인의 자생책 마련과 국권회복의 방책을 실현하던 시기, 급진단과 결사대를 이용하여 무기를 마련하고 국내 진공작전을 도모하던 도전과 모색의 시기였다. 그리고 그 노력의 효과는 잠시 후 만주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연합작전 속에서 전개된 청산리대첩을 통해서 구현되었다.

〈참고문헌〉

- 국가보훈처 공훈자료전시관 독립유공자공훈록(김동삼·이극·김창복·김필순·윤세복).
- 국사편찬위원회 편,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4, 「在外鮮人ノ獨立運動概況1919年4月26日」, 탐구당, 1967.
- 국사편찬위원회 편,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4, 「국외정보 1919년 10월 13일 고경제28814호」, 탐구당, 1967.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9, 「不逞者處分」, 국사편찬위원회, 2003.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9, 「(334) 排日鮮人ノ狀況ニ關スル件」, 국사편찬위원회, 2003.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0, 「(65) 排日鮮人秘密團體狀況取調ノ件」, 국사편찬위원회, 2004.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0, 「(224) 三源浦哈泥河地方ノ狀況ニ關スル件」, 국사편찬위원회, 2004.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0, 「(289) 森林借款問題ト京城視察團員ノ件」, 국사편찬위원회, 2004.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0, 「(328) 鮮人一行旅大觀光ニ關シ報告ノ件」, 국사편찬위원회, 2004.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1, 「(40) 鮮人ノ獨立運動ニ關スル件」, 국사편찬위원회, 2005.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1, 「(285) 普通報(支那) 第四五號」, 국사편찬위원회, 2005.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1, 「(288) 樺甸縣內ニ頭目呂準潛入說其動靜ノ件」, 국사편찬위원회, 2005.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1, 「(328) 機密公第一號 在外鮮人ノ暴舉計劃ニ對スル當地方狀況報告」, 국사편찬위원회, 2005.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1, 「(365) 普通報 第七號」, 국사편찬위원회, 2005.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1, 「(378) 鮮人祕密結社ニ關シ報告ノ件」, 국사편찬위원회, 2005.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2, 「(82) 國外情報」, 국사편찬위원회, 2006.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2, 「(261) 不逞鮮人ノ茂山間島入込ニ關スル件」, 국사편찬위원회, 2006.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 류시중 외 역, 『국역 고등경찰요사』, 선인, 2010.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石洲遺稿』 상·하, 경인문화사, 2008.
-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7』, 「獨立運動에 관한 건(國外 제34보): 圖們江方面, 鴨綠江方面」(1919.4.17).
-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7』, 「獨立運動에 관한 건(國外 제52보): 압록강방면」(1919.4.26).
-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7』, 「獨立運動에 관한 건: 도문강방면, 노령, 압록강방면」(1919.4.13).
-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6』, 「排日鮮人の 動靜에 관한 건」(1918.4.11).
-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7』, 「東省韓族生計會 組織에 관한 건」(1918.5.29).
-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7』, 「圖們江方面 情況彙報」(1918.10.1).
-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歐米 3』, 「大韓獨立宣言書(戊午獨立宣言書)」(1919.2).
-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內地 9』, 「鮮人騷擾事件」(1919.12.2).
- 北野民夫, 『現代史資料』 27, みすず書房, 1970.
- 『동아일보』 1920.9.3, 「이완용을 암살하려다 피체된 이탁 등 16명의 예심이 경성지방법원에서 결정되어 공판에 회부케 되다」.
- 金承學, 『韓國獨立史』 上卷, 獨立文化社, 1965.
-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0.
- 박환, 『민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1.
- 박환,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 조동길, 『于史 趙東杰 저술전집』 12, 역사공간, 2010.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대한민국공보처, 1985.

황민호·홍선표, 『3·1운동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허은, 『하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정우사, 1995.

김주용, 「1910~1920년대 남만주 친일조선인 단체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박성순, 「石洲 李相龍의 「滿洲紀事」 분석을 통해 본 新興武官學校의 하급교육기관 실태 - 柳河·通化縣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7, 동양고전학회, 2017.

서중석, 「청산리전쟁 독립군의 배경 - 신흥무관학교와 백서농장에서의 독립군 양성」, 『한국사연구』 111, 한국사연구회, 2000.

慎鏞廈, 「新民會의 創建과 그 國權回復運動」, 『韓國民族獨立運動史研究』, 乙酉文化社, 1985.

윤병석, 「1910년대 서북간도 한인단체의 민족운동」, 『국외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한시준, 「신흥무관학교와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23일에 투고되어,
2018년 12월 19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1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월 1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The Movement of Pumindan and Sinheung Military School Seen Through Yeo Jun's Activities in Late 1910s

Park, Sungsoon*

This paper covered over from the period of 1916 at which Pumindan was organized through around after May, 1919 at which Hanjokhoe was organized. Because until now, concrete activities in this period became nearly unknown in different to activities after organization of Hanjokhoe and the Western Road Military Headquarter. Nevertheless the concrete activities in this period are very important to confirm the consistent persistence and extension of independence movement in Manchuria, so this paper scrutinized the concrete activities in this period.

Pumindan was a settlement corporation which succeeded in Kyeonghaksu tried militarized struggles against Japan in addition to promote the livelihood of Korean in Manchuria. In the result, the Society for Korean Livelihood in Manchuria was organized in April, 1918 in Jilin, Manchuria. The first chairman of the Society was Yeo Jun who served as a principal of Sinheung military school and a chairman of the Educational Society of Pumindan.

Yeo Jun, the chairman of the Society for Korean Livelihood in Manchuria made up Gunjeongsa together with other independence activists in March, 1919 and became the head of Gunjeongsa. And in October of the year, he also organized Keupjindan, secret military force and became the head of Keupjindan. There was the headquarter of Keupjindan in Jilin city and made plans of advancing operations into Korean Peninsula while importing weapons and recruiting soldiers. Advancing operations into Korean Peninsula had a character of combined operations of independence forces of the outsiders.

The period of the late 1910s at which Hanjokhoe succeeded in Pumindan was the period of challenge and grope for Korean livelihood by the Society for Korean Livelihood in Manchuria and advancing operations into Korean Peninsula by Korean special forces, not the period of stagnation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herefore the effects of efforts came true in the sweeping victory of Cheongsani by combined operations of independence forces in Manchuria.

[Key Words] Pumindan, Sinheung military school, Yeo Jun, the Society for Korean Livelihood in Manchuria, Keupjindan

* Associate Professor, Dankook University